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의사소통행위이론을 중심으로*

김기덕

(순천향대학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를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이론은 사회복지실천에 만연하고 있는 관료화와 효율화를 도구적 이성의 팽배로 적절히 해명하고 그 대안으로 의사소통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규범적 비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를 조망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분석틀이 되기에는 일정 정도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념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단순히 의사소통행위만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하버마스의 이론에 의하면 전문직 관계와 판단이 단순한 이해와 합의의 과정으로 축소되고 만다.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행위의 동기와 도구적 이성의 배제, 의사소통의 일치와 합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나 하나의 지향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 실천전략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론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조건들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주제인 상호이해에 대한 인지적 관심과 간주관성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어떻게 의사소통이론과 결합할 것인지가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의사소통행위, 합리적 이성, 사회복지실천

* 본 연구는 2005년 순천향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좋은 논평을 해 주신 3분의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문제제기

최근 들어 독일 출신 사회학자 하버마스(J. Habermas)의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을 통해 사회복지의 사명과 본질을 분석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김영호, 1988; 김영화, 1997; 이행봉, 1999; 이효선, 2002; 2005, 송형만, 2004, Dean & Fenby, 1989; Rossiter, 1995; Blaug, 1995; Kondrat, 1995). 이들 연구들은 연구자의 개별적 관심에 따라 복지국가 일반이나 사회복지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인 것(Forester, 1987; 이행봉, 1999; 송형만, 2004)에서부터 노인케어나 가정폭력 등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미시적인 것(Anderson and Rouse, 1988)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이들 연구들의 공통된 주장은 담론윤리학(discourse ethics)이라고 불리는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존재목적과 근거를 적절히 조망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실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사회복지 간의 긍정적인 조응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등장한 이면에는 주목할 만한 배경이 놓여 있다. 그 배경에는 바로 최근 들어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ought)의 경향이 자리 잡고 있다(Dean and Fenby, 1989; Mattison, 2000; 이효선, 2005). 주지하다시피 반성적 사고의 핵심은 기존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실체로서 등장한 이래 정체성과 관련하여 복지와 정의(welfare and justice) 혹은 돌봄과 통제(care and control)라는 상반된 지향으로 끊임없는 긴장 속에 놓여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Reid, 1993; Nijnatten, Hoogsteder, Suurmond, 2001). 이러한 갈등은 사회복지라는 전문직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와 그의 구현으로서의 실천 활동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교차하면서 수 많은 쟁점과 논란을 증폭시켜왔다(Parson, 1991).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해방적 소명과 인본주의라는 근본가치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합의가 존재했던 것 역시 또 하나의 사실이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은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상반된 이념지향과 실천에서의 갈등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과 타협을 넘어서서 그간 사회복지 전문직이 스스로 자임하여 왔던 존재근거, 즉 인간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기반으로 이를 억압하는 대상에 대하여 해방과 진보를 주장한다는 소명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의문시하고 부정하는 시각들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Magolin, 1997; 이혁구, 2000). 이러한 경향의 배경에는 그간 사회복지가 자신의 존재근거와 실천전략으로 삼았던 모더니즘에 대한 다양한 포스트 계열의 비판들이 속속 제기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의 실천의 존재근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증가한 것이 큰 역할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반성과 해체를 주장하는 포스트 계열의 문제의식을 일부 공유하면서도 사회복지 본연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온건한 반성적 경향 또한 포스트 계열에 대한 반작용으로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기존 사회복지 실천이 가졌던 실증적, 관료적, 억압적 성격을 반성하고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삶의 경험과 해석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사회복지 전문직의 의사결정

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등, 다원주의 속에서의 민주적 정서를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Thompson, 2005: 120-128).

따라서 이와 같은 반성적 지향을 가진 사회복지학자들에게 있어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다원화된 사회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신뢰와 보편적 합의의 가능성과 이를 통한 인간해방기획의 실현가능성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너무도 매력적인 자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Dean and Fenby, 1989; 이효선, 2005).

하지만 사회복지와 하버마스의 관계를 모색하는 연구들이 가진 시기적 적절성과 학문적 선도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은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그 자체를 자세히 검토하는 작업을 생략한 채 주로 하버마스의 이론의 외적인 특징과 주장들을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 및 이념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들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 대한 일정 정도의 낙관과 인정을 전제하고 이를 사회복지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실제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 실천전략에 대한 논의들 역시 편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특정한 지향을 가진 사회복지실천이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하버마스 비판이론을 사회복지에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함의를 개념적(perceptual) 측면과 실천적(practical) 측면으로 구분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가운데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의사소통이론을 중심으로 이 이론체계가 사회복지실천, 특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맺는 전문직 관계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을 미리 얘기할 수 있다면 이 논문에서는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보편적인 분석틀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지향 가운데 하나의 특정한 지향(a certain kind of social work practice)만을 부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만일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을 통하여 사회복지실천을 조망할 때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하는지가 보다 명확해 진다면 바람직한 사회복지 실천이론 특히 규범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전문직 실천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하버마스의 이론이 어떠한 측면들을 보충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리라고 본다.

2.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담론윤리학

인간이성의 긍정성에 기초하여 해방의 기획(emancipatory project)을 달성하고자 하는 계몽주의 이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하버마스는 이를 위해 담론윤리학(discourse ethics)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을 전개한다. 그의 비판이론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근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보여준 인간 이성의 부작용과 역설을 해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극복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다. 점점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도덕적 규범을 합리적 이성의 틀 내에서 여전히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하버마스는 포스트모던 계열의 이성 해체주의와는 엄밀한 단절을 시도한다. 따라서 이들 포스트계열의 학자들과는 달리 하버마스에게는 인간이성에 신뢰를 둔 계몽의 기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버마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자신의 담론윤리학을 전개하고 있다(선우현, 1994). 그 하나는 합리성 개념의 의미론적 확장 테제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하버마스에 의하면 인간 이성에 대한 그간의 논의들은 이성의 포괄적인 기능 가운데 오직 도구적 이성만을 중심으로 논의함으로써 합리성의 일부만을 편협하게 파악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사소통행위에 대한 구상으로서 그는 기존의 인간 합리성에 대한 이와 같은 편협한 해석이 결국 인간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도구적 이성에 기반을 둔 전략적 행위만을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의사소통 행위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행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간과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1) 합리성 개념의 의미론적 확장

하버마스는 기존의 사회 철학적 논의들이 합리성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였다고 주장한다. 합리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다른 행위주체와는 독립된 개별주체가 스스로 설정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을 모색할 때 작동하는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만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이는 인간 합리성의 범위와 기능을 과도하게 축소해 파악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에 의하면 이같이 이성을 도구적 합리성만을 중심으로 축소하여 파악하게 된 배경에는 인간 존재와 인식에 대한 그릇된 전제가 놓여 있다고 본다. 즉 인간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의미구조 속의 해석적 존재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는 독립된 개별주체를 상정하고 이와 같은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만을 편협하게 다루는 실증주의 중심의 과도한 경험과학의 팽창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Habermas, 1971).

하버마스에 의하면 합리성의 기초인 인식은 인식주체가 가진 실천적 관심과 분리되어 존재 할 수 없으며 인간의 관심은 단순히 사실과 경험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적인 영역에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인간인식을 이끄는 관심은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적인 관심이 유도하는 경험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적 관심이 중심이 되는 역사-해석적 과학, 해방적 관심이 중심이 되는 비판적 과학 등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구성된다고 간주된다(Habermas, 1971).

그런데 인식주체와 독립되어 존재하는 객관적 사물을 연구대상으로 전개되는 경험 과학에서는 주로 인지-도구적 이성(cognitive-instrumental rationality)의 작용이 우세하겠지만, 개별인식주체를 넘어 다른 인식주체를 포함한 사회현상의 분석을 요구하는 해석적 과학과 사회에서 외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회복하려는 비판과학에서는 단순한 도구적 합리성의 범위를 넘어 인식 주체 상호간의 의사소통과 이해를 근간으로 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

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객관적 세계의 진리성 여부 이외에도 사회, 역사적 정당성과 주체의 진실성 등 보다 넓은 의미의 합리성 개념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합리성 범주의 확대는 기존의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과학적 분석의 대상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성의 영역 밖으로 추방되었던 도덕과 규범을 합리성 판단의 영역으로 다시 복귀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Habermas, 1984). 결국 하버마스의 진단에 의하면 근대화의 도정에서 야기된 인간 물상화와 소외의 주된 원인이 이와 같은 인간의 포괄적인 합리성을 단순히 인지적-도구적 합리성으로 축소한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축소된 합리성을 본래의 합리성으로 회복하는 것이 이성과 계몽의 본래 기획을 관철하는 수단이 되며 그 포괄적 합리성이 바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인 것이다.

2) 의사소통행위이론과 이상적 담화조건

인간의 다양한 관심과 인식에 근거한 합리성 개념의 확대는 당연히 인간행위 유형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하버마스는 인간의 행위를 크게 성공지향적 행위와 의사소통 행위로 구분한다. 성공지향적 행위는 개별 주체가 개인적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위이다. 성공지향적 행위에는 개인적인 차원의 도구적 행위와 사회적 차원의 전략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나 두 행위 모두 이기적인 계산이나 효율을 중심으로 설정된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합리성 개념 가운데 주로 인지적-도구적 합리성이 작동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의사소통 행위라고도 불리는 이해지향행위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합의를 지향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타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집합적 합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사소통행위에는 성공지향적 행위에서 요구되는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 규범적인 타당성과 진실성 등이 포함된 포괄적 합리성이 작동된다.

왜냐하면 언어와 행위능력을 갖춘 한 개인이 타인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세계의 영역뿐만 아니라 행위관련 규범의 사회적 타당성과 연관된 사회적 세계, 자신의 개인적 판단과 경험의 표현적 진실성과 관련된 심미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여 자신의 의도를 논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Habermas, 1984). 따라서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의사소통적 행위는 포괄적 행위개념으로서 그것은 목적합리적 행위, 도덕적 행위, 심미적 행위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 된다. 따라서 화자와 독립된 객관세계를 대상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동하는 인지적-도구적 합리성은 보다 포괄적인 합리성 개념인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일부분 혹은 하위개념으로 자리매김 되고 같은 논리로 성공지향적 행위 역시 보다 상위의 개념인 의사소통적 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립되게 된다(정호근, 1996: 90).

결국 의사소통행위이론의 등장은 그간 인간행위를 주로 개별주체의 독립적인 전략행위로 간주하던 목적론적 행위 중심의 사회과학이, 언어를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론으로 일대 전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Benhbib, 1986).

그런데 한 개인의 타인과 언어를 사용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이해에 의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발언이 타당함을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의 전제조건으로서 요구되는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불가피한 전제들이 필요하다.

하버마스는 이와 같이 객관세계, 사회세계, 주관세계를 막론하고 행위주체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의사소통행위가 합리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보편적인 조건들을 이상적 담화 상황(Ideal Speech Situation)이라고 명명하고, 그 내용으로 이해성(comprehensibility), 진리성(truth), 정당성(rightness), 진실성(truthfulness)을 들고 있다(Habermas, 1979: 68).

이상적 담화상황을 통해 합의의 과정을 거친 결과가 올바른 것이기 위해서는 해당 담화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발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그 발언 내용들이 충분히 경청되어야 하고 타인들의 발언내용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권력에 의해 억압이나 왜곡이 없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이상적 담화조건은 어떤 의사소통이 과연 올바른 의사소통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의 규범적 척도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인간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보편적 합리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결국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의 핵심은 사회비판의 규범적 토대를 의사소통합리성의 개념을 통해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이며 그 토대로써 이상적 담화상황이라는 권력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 구조를 그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의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3. 사회복지실천의 개념적 준거로서의 의사소통이론

사회복지가 하버마스의 이론을 통하여 얻는 것이 많다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인지-개념적인(perceptual) 측면과 연관되어 있다(Blaug, 1995: 423). 인지-개념적 측면이란 사회 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이 작동하는 목적과 기능 그리고 작동방식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은 어떻게 해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이 점점 관료화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Blaug, 1995: 424). 이 장에서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이 진정 사회복지실천의 개념적 틀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 장에서 진행되는 논의의 핵심은 과연 하버마스 의사소통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과 소명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1) 의사소통의 세계와 사회복지의 세계

의사소통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세계는 언어능력과 합리적 이성을 가진 주체들이 자신과 타인이 주장하는 논증의 타당성을 이해하고 합의과정을 통해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세계이다(Habermas, 1991: 148-155). 하버마스가 설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자질로서의 언어능력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갖춘 존재이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주체들의 궁극적인

관심과 지향은 상호 이해와 의견일치를 위한 의사소통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하버마스는 의사소통과정에 대하여 선험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간의 본성은 의사소통이며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수적이고 또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담화조건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일련의 선험적 가정들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을 통해 볼 때 하버마스가 상정하고 있는 세계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역사적 이상이자 동시에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와 범주들을 적절하게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적인 범주를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맺는 관계를 언어능력과 합리적 이성을 가진 두 행위 주체들이 자신과 타인이 행하는 논증의 타당성을 이해하고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 가는 합의의 세계로 볼 수 있을까?

물론 인간사회의 궁극적인 지향들 가운데 하나가 주체들 간의 이상적인 의사소통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상위의 유일한 가치라든지 혹은 이러한 이상을 현실에 무조건 강요하고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의 의사소통 공동체는 스스로를 보전해야 할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중요한 욕구를 돌보아야 할 책무도 가지고 있다(선우현, 2002: 241).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하버마스가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 의사소통행위만을 본원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목적 합리적 혹은 성공지향적인 전략적 행위를 파생적인 것으로 보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의사소통행위와 전략적 행위를 초월하는 보다 상위의 본원적인 행위나 목표를 전제하고 그러한 행위에서 의사소통 지향적 행위와 전략적 행위가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이론에 대한 이와 같은 논쟁점은 사회복지전문직의 본질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을 사회복지 전문직의 본질에 적용하면 사회복지전문직은 사회적 차별과 특권을 개입하지 않고 합리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담론 참여자들의 평등성과 보편적 접근가능성을 지향하는 상호토론과 합의의 이상적 기준이자 현실적인 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사회복지전문직의 본질을 대변하는 핵심가치 가운데 하나는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NASW, 1996).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들이 자신들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의 내용과 위계순위를 표현한 윤리원칙심사의 내용을 보면 가장 최고의 가치는 생명보호의 원칙(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life)으로서 이는 평등 및 불평의 원칙(principle of equality and inequality)이나 자율과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autonomy and freedom)에 앞서는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회복지전문직의 본질적인 속성은 절차적 정의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의 정치(politics of consensus)를 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과 욕구충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케어(care)의 실현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의사소통이라는 인간행위의 한 측면이 유용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보인다.

2) 의사소통행위와 전문직 관계

사회복지실천의 핵심범주를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로 설정하게 되면 곧바로 전문직 관계의 본질에 대한 또 다른 쟁점을 야기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를 소유하고 그에 기반 하여 일정정도의 자유재량과 책임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Thompson, 2005: 9-12).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재량과 책임성의 존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회복지사의 실천 활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적 형태(mode of directiveness)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든다(Rothman et al., 1996). 그런데 이와 같은 지시적 속성을 일정정도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직을 과연 서로간의 평등과 보편성을 전제로 수행하는 상호토론과 합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회복지사가 행하는 지시 혹은 통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과 능력의 차이, 즉 권력과 권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권력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전문적인 지시 혹은 사회통제가 필연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전문가가 가질 수 있는 상위의 도덕적 판단단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도덕단계의 요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낮은 단계의 판단력은 자신의 관심을 높은 단계의 판단력이 고려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상대적으로 우월한 인지적 사고를 가진 주체가 그렇지 못한 주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개입을 근본적으로 금할 수 있는 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 그 자체가 실로 도덕적인 물음인 것이다(정호근, 1997: 136).

이러한 측면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의사결정(self-determination)의 원칙과 전문가의 온정주의적 개입(paternalistic intervention) 사이에서 도덕적 긴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Reamer, 1983). 사회복지 전문직이 지향해야 할 가치들 중에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염두에 둔 자기의사결정의 원칙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진 선행의 원칙(the principle of beneficence)이 사회복지의 핵심가치 가운데 하나로 엄연히 자리 잡고 있고 이들 사이에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적인 논거는 없다. 따라서 만일 특정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이 자기의사결정의 원칙보다는 선행의 원칙으로 자리매김 된다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은 사회복지전문직의 핵심이론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핵심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켜져야 하는 이차적 이론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연관된 또 다른 쟁점이 바로 새로운 권리로서의 소비자 선택과 참여(consumer choice and participation)의 문제이다. 하버마스는 자신의 이론에서 그 대화의 내용과 결정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Habermas, 1987: 395). 이러한 점은 최근 들어 전통적인 사회복지 전문직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등장한 신민주주의 윤리관을 채택한 사회복지 윤리의 새로운 경향들과 맥을 같이 한다(Gould, 1992: 143-154).

이 경향의 핵심은 의사결정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의미 있게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많은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클라이언트의 의미 있는 참여와 단순한 소비자 선택을 판단할 수 있는 엄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사회복지 전문가의 자유재량권과 책임성을 행사하는 대신에 민주주의적 정서를 내세워 소비자의 선택만을 배타적으로 우선시하는 경우 사회복지의 핵심가치를 부적절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Blaug, 1995: 430).

따라서 전문성에 기초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권위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복지사의 태도가 구체적인 실천현장에서는 상호 모순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며(홍선미, 2002: 96), 이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은 사회복지가 처한 현실을 충분히 포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의사소통능력과 클라이언트 및 연대성

의사소통이론을 통하여 사회복지 실천을 조망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은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인 클라이언트의 범위와 능력에 관한 것이다. 하버마스의 이론에 의하면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합리적 이성의 소유자들만이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의사소통이론에 의하면 이성적인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대화에 진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화의 수행자들은 이성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합리적 이성에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논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입장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타인을 합리적 논증 능력을 갖춘 의사소통 능력자로 인정할 때만 의사소통행위를 시도할 것이고 또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김정주, 2004: 257). 따라서 의사소통이론을 충실하게 따른다면 합리적 이성능력이 결핍되어 적절하게 논증할 수 없는 주체들은 담론공동체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담론공동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하버마스의 세계에서는 인간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인 구조로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대상들을 사회복지의 중요한 클라이언트로 인정하여 왔고 이들을 적절하게 대변하는 역할(role of advocacy)을 중요한 실천의 한 유형으로 간주해왔다(Beckett and Maynard: 2005: 96-97). 예를 들어 아동이나 노인들과 같이 생애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의 기능이 약한 경우만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통해 반영구적으로 공론의 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들, 즉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인간들이나 사회적 현실 구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이었던 것이다(Hare-Mustin, 1994).

그런데 하버마스의 이론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집단은 아예 의사소통의 세계에서 행위의 주체로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만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에서는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이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능력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연대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그렇다면 하버마스는 자신의 의사소통이론 내에서 행위주체들 사이의 연대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하버마스의 주장대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담화가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를 통한 합의의 산물이라면 이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의사소통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실제 합의과정을 통하여 행사되는 당사자들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협력 및 연대성과 관련하여 하버마스는 오직 의사소통 공동체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합리적 주체들 사이에서의 연대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담론윤리에서 요구되는 이상적 의사소통구조와 사회적 합의는 그 이상적인 특성 때문에 구체적인 공동체를 초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상호연대의 흐름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Habermas, 1991: 90). 하지만 의사소통 행위자들 내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버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연대성은 특수한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는 연대성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능력과 언어행위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의사소통 과정 안에서 공유하리라고 막연히 기대되는 추상적 연대성이다.

실제 현실사회에서 구체적인 인간들이 수행하는 의사소통과정 속에서는 연대성뿐만 아니라 긴장과 투쟁, 갈등과 반목이 혼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체적인 현실의 의사소통과정의 역동성을 무시하고 보편적인 형태의 이상적 의사소통으로 형식화하게 되면 하버마스의 이론은 일면적인 규범적 척도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에는 이상적 담화상황이라는 대화의 조건만이 제시될 뿐이고 이와 같은 이상적 담화상황 속에서는 장기적인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견의 일치를 이루게 된다는 낙관론이 전개된다. 따라서 대화의 과정 속에 등장하는 불일치나 왜곡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만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은 상호 주관적인 호혜적 인정관계를 사랑과 투쟁의 구체적 긴장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이상적 의사소통으로 축소 형식화한 것이다(박구용, 2003, 107).

이러한 측면은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학이 상당 부분 그 기원의 뿌리를 대고 있는 칸트 윤리학이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하여 미치는 이상주의적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 논문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가정하고 있는 인간관은 주로 칸트의 도덕철학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관으로서 인간을 매우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주체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들이 실제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모순적이라고 바라본다(Webb and McBeth, 1989). 실제 사회복지현실에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정치적, 경제적 자원의 불균형과 부족으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힘든 조건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담론윤리학이 제시하는 추상적인 조건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실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는 절차적 정의를 담보물로 하여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할 경우 이는 권력을 가진 개별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특수이익을 행위주체들의 협력과 연대성에 기인한 보편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4. 사회복지실천의 전략적 도구로서의 의사소통이론

사회복지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점은 실용적인(practical) 것이다(Blaug, 1995: 423). 실지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에 대하여 주어진 많은 비판들이 이 이론의 현실 적용가능성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예상하여 하버마스 역시 자신의 이론이 어느 정도 반사실적(counter-factual)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적용을 위한 경험적 조건은 일정 정도 결여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Habermas, 1973).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의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어떠한 기능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사소통 행위의 동기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의사소통행위의 발단은 행위주체들의 자발적인 이해와 합의의 필요성에서 찾아진다(유홍림, 2003: 1). 하버마스의 담화개념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들의 의사소통자체가 상호 지향적이어서 항상 협력적인 노력과 갈등 해결을 위한 동기가 내부적으로 주어져야만 한다(Habermas, 1983).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행위에 진입하고 자하는 행위 당사자의 의도 즉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쳐 상호지향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선형적으로 혹은 인간행위의 본질로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왜 인간은 다른 행위자들과 대화에 참여해야만 하며 그들의 실천행위에 대하여 해석하고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Barnes, 1974).

한 사회에서 어떤 행위주체로 하여금 타인과 의사소통행위를 하게 만드는 조건이나 동기 혹은 구조는 의사소통행위 자체와는 별도로 상이한 차원에서 존재할 수 있다. 일상적 사회에서의 행위당사자들의 협력 지향적인 행위지향들은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조직체 내부 혹은 외부의 조건이나 자극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김삼룡, 2003: 20).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주체들은 다양한 자신만의 현존방식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욕구나 이해 또는 자신의 가치나 이상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권력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대화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특정한 삶의 방식을 절대화하고 권력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질서나 신념체계에 대한 비판의식과 이러한 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존재의 미학이 전제되어야 한다(문성훈, 2001: 187-188).

이와 같은 쟁점은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줄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행위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두 행

위주체가 직면한 상황에서 타당성 조건에 부합하는 담화들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하자. 이러한 과정은 하버마스의 지적대로 두 행위주체가 서로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진행된 상호이해의 과정이었다고 일단 간주하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의사소통행위를 추동시킨 근본적인 동력이나 동기가 무엇인가이다. 이들은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이와 같은 의사소통행위에 진입하게 되었을까? 달리 표현하자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해서 상호이해에 대한 인지적 관심과 간주관성에 의한 실천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만일 하버마스가 자신의 의사소통이론이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이론 내에서 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의 대화에 참여해야만 하고 또한 그들의 실천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합리적 답변을 주어야만 한다(김경만, 2005: 216).

그러나 의사소통 과정에의 참여 동기는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형적으로 혹은 본원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의사소통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인간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떠한 본원적인 가정들이다(김정주: 2004: 257-260). 달리 표현하자면 이것은 어떤 합리적인 존재가 자신과 다른 합리적 혹은 비합리적 존재와 연대성을 유지하라는 도덕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본원적 혹은 선형적이라는 이유는 이러한 명령이 합리적인 판단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일종의 직관적 판단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이상적인 담화조건을 지키면서 담론 윤리학을 실천해 나가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본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가지는 특유의 고유한 지향과 도덕적 경향이다. 이것은 바로 사회복지 전문직이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인 공통 요소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인본주의(Humanitarianism)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Thompson, 2005: 9).

2) 도구적 합리성의 통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에 의하면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끊임없이 도구적 이성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달리 말해서 의사소통이론이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라고 하더라도 도구적 이성은 현실적으로 엄연히 작동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성과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야기한다. 하버마스는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도구적 이성이 의사소통적 이성을 체계적으로 잠식해 나가는 상황을 식민화의 과정(a process of colonization)이라고 개념화한다(Habermas, 1987: 355).

하버마스의 이론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조망할 때도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다. 비록 사회복지실천에서 의사소통적 활동이 우세하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는 분명히 도구적 합리성의 속성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고, 점점 강화되는 사회복지 실천의 관료제화와 효율성 강조는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도구적 합리성의 식민지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Blaug, 1995: 426-427).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소통이론의 실천 전략화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비록 하버마스가 개념 차원에서 의사소통이성이 도구적 이성보다 보다 본원적이며 근원적이라는 것을 논증한다 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도구적 이성을 의사소통이론이 어떻게 통제,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하버마스가 자신의 행위중심의 의사소통이론을 사회이론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생활세계(Life-world)와 체계(system)의 대립항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생활세계란 언어와 행위의 주체로서의 인간들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진리를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작동하는 공간인 반면, 체계는 화폐와 권력이라는 비언어적 매체를 통해 도구적 이성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의사소통 이론을 사회구조의 문제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구조를 체계와 생활세계의 이중구조로 분석할 때 담론윤리학에서는 전략적 행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위의 범주로 자리매김 되어 본원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던 의사소통행위가 생활세계와 체계간의 관계에서는 체계의 상위개념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체계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위상이 설정된다(정호근, 1996: 90-91). 즉 사회구조의 설명에서는 상호작용적 이성이 도구적 이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동등한 위상으로 설정된다.

물론 하버마스의 지적대로 생활세계가 체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해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나 그 역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즉 현실적으로 온존하고 있는 불평등과 지배관계의 확산과 심화는 의사소통구조를 왜곡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압박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버마스의 이론을 충실히 따른다고 하더라도 현실 사회구조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직의 실천 활동은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행위와 이들의 사회적 구조화로서의 체계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수많은 비판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와 같은 사회복지전문직의 실천과정에 만연되어 있는 체계의 영향에 대한 폭로와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전문직의 효율지향성, 실천과정에서의 대상화와 억압, 목표의 도치 등에 대한 지적 역시 이상적 담화조건들과 담론윤리학의 상호성과 자발성이 상실된 채 사회복지전문직이 체계의 정당성 기구로 전략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최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의 신민주주의 경향에서도 클라이언트가 가진 가치관을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권위와 동일하게 인정한다든지,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사이 혹은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서 민주적인 협의절차를 제도화한다든지 나아가 클라이언트가 가진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정책 참여를 강조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Lucas, 1993; Linzer, 1999). 그런데 문제가 되는 쟁점은 이와 같은 신민주주의 경향의 사회복지실천을 추동할 수 있는 전략, 다시 말하면 도구적 이성과 그의 현실적 구현체로서의 생활세계의 식민화로부터 의사소통적 이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전략이 의사소통행위론 자체에서는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은 현실의 사태를 점검하는 비판의 토대이자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제시된 것이지 권력에 의해 조정되거나 무력화된 의사소통 구조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전략은 될 수 없다(선우현, 1994: 85).

따라서 의사소통이론을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는 토대나 사전조건에 대한 논의와 실천전략이 부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3) 일치 및 합의에 대한 판단

세 번째 실천상의 문제점은 비록 사회복지 전문직의 관계가 사회 체계로부터 일정정도 단절되어 권력과 권위에 의해 왜곡된 의사소통구조를 탈피하여 이상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에 진입하였다고 가정 하더라도 전문가와 클라이언트가 자신들의 의사소통 내부로부터의 상호이해와 협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공평성을 획득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김경만, 2005: 226). 달리 표현하면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만적 합의로부터 진정한 합의를 구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양식과 그 판단기준을 과연 명확하게 확보하였는가 하는 지적이다(Thompson, 1995: 113).

하버마스는 해석자로서 의사소통참여자는 이상적 담화조건을 준수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객관적인 관찰자에게 주어진 인식적 특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수행적 태도를 지니게 되고 이러한 태도는 대화참여자들이 하여금 의사소통의 맥락의 내부로부터 협상된 공평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Habermas, 1984). 공평한 입장이란 의사소통의 참여자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화행위를 선택하고 사용할 균등한 기회의 배분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점은 행위자들 사이에서 발화행위를 선택하고 사용할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Thomson, 1995: 113).

이러한 쟁점들은 최근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실천의 모색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실천의 수동적 대상으로 간주해오던 사회적 의료(social medicine) 모델과 치료적 접근(treatment approach)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협력관계(partnership)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Thompson, 2005: 123). 이러한 경향들은 최소한의 개입과 최대한의 협력(minimum intervention and maximum partnership)이라는 구호 아래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에서 전문가의 권위와 억압을 최소화하고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한다(Dalrymple and Burke, 1995).

그러나 이들 입장에서도 정확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 충분히 협력이 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조건과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표현들을 보자면 서비스 사용자들과 함께 하는(done with),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변해서(on behalf of), 서비스 사용자들과 상의하여(in consultation with) 등으로서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 내용은 불분명하다(Beckett and Maynard, 2005: 165). 특히 합의의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문제의 진단과 개입의 결정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등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쟁점은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이상적 담화조건들이 행위주체들의 의사소통 결과의 타당성을 완전하게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상적 언어조건들은 사후적으로만(ex post)만 불충분하게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담화모형은 대화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의견의 불일치와 불합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진단하는 데는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나, 규범적 진술의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이상적 대화조건은 의사소통의 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가설적 기준으로서 하나의 비판도구로써 기능할 여지가 높다(김상룡, 2003: 18-19).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강한 의구심은 하버마스와 같이 대화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물은 이해와 합의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라고 간주한다면 이는 진리의 내용에 대한 척도와 진리의 결정과정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버마스의 주장은 진리의 개념정의나 내용적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아니라 절차주의적 정의관에 기반을 두어 기존의 진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던 참여자의 관찰과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원칙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점은 하버마스가 이해와 일치에 구별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이다(Roderick, 1991: 220). 현실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보면 의사소통의 주체들이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언제나 의견의 일치를 정확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이상적인 담화조건 속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더라도, 전문가가 내리는 판단이 클라이언트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빈번하다.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의 의견과 전문직 판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는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실천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의 원천이 된다(Beckett and Maynard, 2005: 183-87). 물론 이와 같은 불일치가 윤리적 의사결정(ethical decision making) 모델의 적용과 같은 추가적 대화과정을 통해 일치와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하버마스의 주장과 같이 대화 당사자들 간에 일치가 언제나 달성되는 것으로 선험적 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이해와 일치와 관련하여 왜 진정한 이해와 일치가 오직 보다 나은 주장의 논증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에 대한 비판도 제시되고 있다(Roderick, 1991: 220). 이 주장에 의하면 의사소통 당사자들 간의 이해와 합의는 꼭 논증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사랑, 동정, 공동책임, 연민에 의해 달성될 수도 있다고 주장된다. 실제로 사회복지영역에서도 오래 전부터 하버마스가 근거하고 있는 합리주의적 도덕철학의 전통을 비판하면서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Callahan, 1988).

만일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주관적 진리의 모색이 아니라 서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기반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논증을 위주로 하는 명제적 지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포괄적인 지식과 지혜의 개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특히 사회복지 지식의 예술적 차원, 즉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고 일깨우는 것과 관련된 실천 기술적 지식에 대한 관심은 더욱 필요하리라 본다(고미영, 2003: 66-71).

5. 결론 및 제안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볼 때 하버마스가 전개하고 있는 의사소통이론은 그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인간본성 및 행위를 포괄하거나 근원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보편적 범주를 제공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버마스의 이론은 언어 및 의사소통에 대한 그의 특정한 규범적 이해에 기반하

고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약화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적인 규범적 기준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정호근, 1997: 128-129).

물론 하버마스의 이론에 대한 이와 같은 지적이 어떠한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 논증을 가장 우선시 하는 철학적 영역에서는 전적으로 타당할지 모르지만, 사회복지학의 영역에서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라는 영역은 본질적으로 규범적일 수밖에 없는데 만일 특정한 사회복지의 지향이 하버마스가 전제하고 있는 규범과 적절히 부합한다면 특정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하버마스의 이론은 일정한 실천적 함의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버마스의 이론은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와의 친화성이 높은 사회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이 특정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옹호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지적은 실로 타당하다(Blaug, 1995). 그렇다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적절하게 부합하는 사회복지실천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1960년대 이후부터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가치(traditional values)에서 탈피하여 사회복지실천은 보다 광범위한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이와 같이 전통적 가치를 보완 혹은 대체하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들은 해방적 가치(emancipatory values)라고 통칭하여 불리고 있다(Thompson, 2005: 120-128). 전통적 가치와 구별되어 이러한 해방적 가치에 속하는 것들을 일별해 보면 탈개인화(de-individualization), 형평(equality), 사회정의(social justice), 협력 관계(partnership), 시민권(citizenship), 권력강화(empowerment), 실존적 진실(authenticity) 등으로서 이들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전문직의 억압성과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등장한 신민주주의 윤리관 중심의 새로운 경향들(Gould, 1992: 143-154)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향의 핵심은 조직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 의미 있게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민주주의적 정서(democratic ethos)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경향들이 클라이언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규범적인 의사결정의 절차와 기준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하여 많은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 자체에 대한 논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이에 근거한 의사소통행위가 인간행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범주가 되기에는 일정정도의 한계가 있다. 사회복지 실천 역시 의사소통행위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하며 사회복지 실천의 본질이 과연 의사소통행위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성공 지향적 행위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가진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함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사회복지 실천을 선도할 유일한 핵심이론으로 상정하는 것은 아직 시가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은 사회복지의 많은 영역 가운데 의사소통이론이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을 선별하고 적용을 모색해 봄으로서 실천전략으로의 가능성을 점검하여 보는 것이다(Blaug: 1995). 그러한 영역들 가운데 임상 실천과 관련된 것으로는 의사소통적 특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네트워크(networking)이나 구성주의적 행동학습(action learning) 혹은 권력강화

(empowerment)와 연관된 각종의 실천, 그리고 동년배 수퍼비전(peer group supervision)과 연관된 영역이나 반영팀(reflecting team)을 사용한 가족치료(family therapy)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공공정책분석(public policy analysis), 사회복지와 관련된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 기관행정의 의사결정(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등 의사결정 참가자의 의사소통능력이 일정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거시적 실천의 영역에서도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중요한 준거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을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나 지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천 전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나 절차를 보다 명확화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통해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일치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권력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실천 상황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으로서 의사소통행위가 시작되고 추동될 수 있는 동기나 원인에 대한 논의 등은 의사소통이론의 내용과는 별도로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셋째,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의 충실한 적용이 사회복지의 전통적인 가치나 실천 가운데 본원적인 것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결정 능력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결정 절차 없이 소비자의 선택만을 배타적으로 우선시하는 경우 이는 오히려 사회복지 전문가의 자유재량권과 책임성을 방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핵심가치를 부적절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의미 있는 참여와 단순한 소비자 선택을 판단할 수 있는 엄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하버마스 이론의 무리한 적용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이 보다 포괄적이고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준거들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의사소통이론에 인간성과 연대성의 범주를 담을 수 있는 개념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버마스가 인간의 주체성과 능력에 관한 신뢰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피력은 의사소통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주체들에 한정된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역사와 현실을 볼 때 진정한 휴머니즘의 여부는 이성적인 사람들만의 도덕성이 아니라 이성의 타자, 즉 이성적으로 무능한 사람들과 이성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며 이성적인 사람들과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모색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담론 윤리학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세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담론윤리학의 외부에서 담론적 이성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 즉 하버마스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의사소통 주체들의 상호이해에 대한 인지적 '관심'과 관주관성에 대한 실천적 '관심'에 대한 선형적인 규정을 보다 경험적으로 분명히 하고 이를 의사소통 영역의 경계 혹은 밖에 존재하는 대상들에게 이를 이론적으로 확대할 수만 있다면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가진 사회복지의 준거틀로서의 함의는 극대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미영. 2003. "사회복지지식의 정치성과 예술성". 『상황과 복지』 15: 45-79.
- 김경만. 2005. 『담론과 해방-비판이론의 해부』. 궁리
- 김삼룡. 2003. "하버마스의 담화개념". 『한국정책학회보』 12(2): 1-32.
- 김영화. 1997. "사회복지의 이념과 현실적 타당성을 위한 담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55-70.
- 김영호. 1988.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현상학적 커뮤니케이션". 『사회사업논총』 11(1): 64-112.
- 김정주. 2004. "합리성과 인간성: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과 그 한계". 『범한철학』 32: 245-268.
- 문성훈. 2001. "현대성의 자기분열: 개별적 자아의 해방과 보편적 이성의 실현". 사회와 철학 연구회. 『한국사회와 모더니티』. 이학사: 147-193.
- 박구용. 2003. 『우리안의 타자: 인권과 인정의 철학적 담론』. 철학과 현실사.
- _____. 2003. "하버마스 담론 윤리학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범한철학』 23: 161-184.
- 선우현. 2002. "담론 윤리학의 정립 토대 확보를 위한 예비적·보완적 이론 기획". 『위기시대의 사회철학』. 울력 213 - 245.
- _____. 1994. "하버마스의 합리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개념분석적 전략과 사회이론적 전략의 상충을 중심으로". 『철학논구』 22: 59-92.
- 송형만.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하버마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가톨릭 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유홍립. 2003. 『현대 정치사상 연구』. 인간사랑.
- 이진우 역, 1991. 담론윤리의 해명. J. Habermas. 1991. *Erläuterungen zur Diskursethik*. 문예출판사.
- 이행봉. 1999. "하버마스이 현대복지국가 비판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14(1): 177-251.
- 이혁구. 2000. "권력의 장치로서의 사회복지-푸코의 권력이론에 입각한 '권한부여 비판'". 『한국사회복지학』 43: 328-357.
- 이효선. 2005. "클라이언트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패러다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5년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77-109.
- _____. 2002. "사회복지기본가치와 보편적 윤리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칸트를 넘어 하버마스까지". 『한국사회복지학』 47: 47-61.
- 정호근. 1997. "의사소통적 규범정초 기획의 한계". 한상진 외. 『하버마스 이성적 사회의 기획, 그 논리와 윤리』. 나남출판: 113-140.
- _____. 1996.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권력 그리고 사회구성". 『인문학 연구』 2, 3집합본호: 86-109.
- 하재창 역, 1991. 『하버마스과 비판이론』. R. Roderick. 1985. *Habermas and the Foundations of Critical Theory*. 원광대학교 출판국.
- 홍선미. 2002. "사회복지실천의 패러독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2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85-100.
- 황태연 역. 1996.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J. Habermas. 1983. *Moralbewußtsein und kommunikatives Handeln*. 나남출판.
- Anderson, C. and L. Rouse. 1988. "Intervention in case of women battering: an application of symbolic interaction and critical theory." *Critical Sociological Review* 6: 134-47.

- Barnes, B. 1974. *Scientific Knowledge and Sociological Theory*. Routledge and Kegan Paul.
- Beckett, C. and A. Maynard. 2005. *Values & Ethics in Social Work*. Sage Publications.
- Benhabib, S. 1986. *Critique, Norm, and Utopia: A Study of Foundation of Critical The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 Blaug, R. 1995. "Distortion of the Face to Face: Communicative Reason and Social Work Practic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5: 423-439.
- Callahan, S. 1988. "The Role of Emotion in Ethical Decision Making." *Hasting Center Report* 18: 9-14.
- Dalrimple, J. and B. Burke. 1995. *Anti-Oppressive Practice*. Open University press.
- Dean, R. and B. Fenby. 1989. "Exploring Epistemologies: Social Work Action as a Reflection of Philosophical Assumption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5(1): 46-54.
- Forester, J. 1987. *Critical Theory and Public Life*. MIT Press.
- Gould, C. 1992. "New Paradigm in Professional Ethics: Feminism, Communitarianism and Democratic Theory." *Professional Ethics* 1: 143-154.
- Habermas, J. 1971. *Knowledge and Human Interest*. Beacon.
- _____. 1979. "What Is Universal Pragmatics?" pp. 1-68. in *Communication and Evolution of Society* translated. by T. McCarthy. Beacon.
- _____.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I*. Beacon Press.
- _____.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II*. Beacon Press.
- Hare-Mustin, R. 1994. "Discourses in the Mirrored Room: A Postmodern Analysis of Therapy." *Family Processes* 33(1): 19-35.
- Kondrat, M. 1995. "Concept, Act, and Interest in Professional Practice: Implications of an Empowerment Perspective." *Social Service Review* 69(3): 405-428.
- Linzer, N. 1999. *Resolving Ethical Dilemmas in Social Work Practice*. Allyn and Bacon.
- Lucas, L. 1993. "Searching for answers." *Open Mind* 63: 17.
- Magolin, L. 1997. *Under the Cover of Kindness: The Invention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Virginia.
- Mattison, M. 2000. Ethical Decision Making: The Person in he Process. *Social Work* 45(3): 201-212.
- NASW. 1996. *Code of Ethics*. Author.
- Nijnatten, C., M. Hoogseder. and J. Suurmond. 2001. "Communication in Care and Coercion: Institutional Interactions between Family Supervisors and Parent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1: 705-720.
- Parton, N. 1991. *Governing the Family, Child Care, Child Protection and State.*, MacMillan.
- Pease, B. and J. Fook. 1999. *Transforming Social Work Practice-Postmodern Critical Perspectives*. Routledge.
- Reamer, F. 1983. The Concept of Paternalism in Social Work." *Social Service Review* 57: 254-71.
- Reid, P. 1993. "The Social Function and Social Morality of Social Work: A Utilitarian

- Perspective." in *The Moral Purpose of Social Work*. pp. 34-50. edited by P. Reid and P. Popple. Nelson-Hall.
- Rothman, J. et al. 1996. "Client Self-determination and Professional Intervention: Striking a Balance". *Social Work* 41: 396-404.
- Rossiter, A. 1995. Teaching Social Work Skills From a Critical Perspectives. *Canadian Social Work Review* 12(1): 9-27.
- Thomson, J. 1995. "보편적 화용론". T. Rockmore et al. 하버마스 다시 읽기, 임현규 편역 인간사랑: 94-125.
- Thompson, N. 2005. *Understanding Social Work : preparing for practice*. Palgrave.
- Webb, S. and G. McBeth. 1989. "A Political Critique of Kantian Ethics in Social Work."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19: 491-506.

An Explorative Study of Application of Habermas's Critical Theory to the Social Work Practice : Focused o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Behaviors

Kim, Gi-Duk
(Soonchunhyang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Habermas's Critical Theory,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modern descendant of enlightenment thought, on the social work profession. The focus of this paper is a critical examination on expected perceptual and practical gain provided by communicative theory for the professional relations between social workers and clients. This paper proves that Habermas's theory has failed to sufficiently grasp the scope and functions of social work practice.

First, in regard to perceptual gains, Habermas's theory commits some kind of reductionism which considers communicative behaviors as only and original one. It is likely to limit the scope and extent of the function and mission of social work into a kind of communication performed by humans with communicative ability.

Second, in regard of practical gains, Habermas's theory does not provide detail procedure of power-free communication nor critical criteria to evaluate the degree of ideal speech situation. Without these ones, Habermas's critical theory might play a role of liberal conservatism, which is trying to replace the substantial contents with procedural formality.

In sum, to be a adequate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 for social work, Habermas's theory needs to combine additional humanitarian considerations into communicative paradigm with more detail requirements and preconditions for ideal speech situations between professional and clients.

Key words: Habermas, critical theory, communicative behaviors, social work practice.